

‘유퀴즈’ 황상만 형사→정우성까지...역대 최고 시청률

다양한 직업군 사람들 ‘유퀴저’로 출연해 직업세계 대화

영화배우·웹툰 작가 등 일상-인생 이야기에 이목 집중

‘유 퀴즈 온 더 블록’이 론칭 이후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3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tvN 예능물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은 전국 유료플랫폼 가입 가구 시청률 평균 3.5%, 순간 최고 4.6%를 기록하며 2018년 첫 방송 이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유퀴저’로 출연해 자신이 속한 직업의 세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영화배우, 웹툰 작가, 호텔 도어맨, 디지털 장의사, 형사 등 궁금했지만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이들의 일상과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63회 제한절 특집에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던 황상만 형사가 깜짝 출연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형사로서의 사명감이 담긴 추적 에피소드는 유재석과 조세호의 탄성을 자아냈다.

44년 차 경력을 지닌 우리나라 최고령 호텔 도어맨 권문현씨는 직업병, 아찔했던 순간, 350여개의 차 번호를 암기한 에피소드 등 서비스 장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현장에서 유재석, 조세호의 관심을 보고 성격을 예측하고 객식 추천을 하며 훈훈한 웃음까지 책임졌다.

영화배우로서 ‘유퀴즈’를 방문한 정우성은 직업이 갖고 있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댓글 읽는 시간, 밸런스 퀴즈, 성대모사까지 채지 있는 입담으로 유쾌한 시간을 만들었다.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호진씨는 의뢰인의 ‘잊힐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가감 없이 전하며 묵

직함 울림을 자아냈다. 가장 힘든 의뢰, 가장 뿌듯했던 순간 등을 솔직하게 밝히고 의뢰인의 보안을 위해 유지하는 특별한 회사 분위기를 소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 1세대 웹툰 작가 조석과의 토크 시간도 흥미진진함을 유발했다.

14년간 연재한 작품 ‘마음의 소리’를 끝낸 소감, 웹툰 작가의 한 달 소식, ‘애봉이’ 캐릭터의 실제 모델인 아내와의 연애 스토리 등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연출을 맡은 김민석 PD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꾸준히 활약해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셨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직업정신을 잃지 않은 황상만 형사의 노고는 많은 분께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주 한 주 섭외와 기획에 공을 들이는 작가들과 밤을 지새우며 정성스럽게 편집하는 후에 피디들 덕분에 시청률도 계속 오르는 것”이라며 “고생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방송.

뉴스



‘비밀의 숲2’ 배우나 “행정일 하는 한여진에 당황”

“내가 사랑하는 캐릭터 한여진은 성장중”



의 숲2’에서 용산서가 아닌 본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는 변화가 예고됐다.

배두나는 30일 용산서가 아닌 본청에서, 그것도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한여진에 대해 “살짝 당황했던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한여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녀는 지금 힘들거나 외롭지 않은지 걱정됐다”고 했다. 강력반 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강력반에 임명해서도 누구보다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본을 읽으며 이내 곧 한여진을 이해하게 됐다. “용산서 강력반에서 일을 수행하며 느꼈던 성취감 못지않게, 개선해야 할 행정적인 문제점을 봐오며 더 깊이 알아 내고 개선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을 것 같다”며 “한여진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바꿔보고자 낯선 곳에 가 있고, 그만큼 성장중”이라고 설명했다.

배두나는 “한여진은 저 역시 너무 사랑하는 캐릭터”라며 “지난 시즌 그녀를 보낼 때 참 애똥했는데, 다시 한번 그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아울러 “부드러운 카리스마, 여유를 갖춘 단단함, 너그러우면서도 단호한 면모, 객관적인 정의로움, 그리고 끌고 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능한 프로다운이 한여진만의 여전한 매력”이라며 “‘변화’라는 단어 대신 ‘확장’이라고 표현하고 싶

다”고 강조했다.

고독한 검사 ‘황시목’ 역의 조승우를 비롯해, 용산서 식구들과의 케미도 여전하다.

배두나는 “한여진에게 황시목은 가장 공경하고 편견과 사리사욕이 없는, 존경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며 “각기 속한 집단 내에서 어떤 심 같은 존재들이라, 둘이 함께 일때 더 시너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검경협의회에서 황시목을 만나게 돼 다행이라 생각했다”며 공경하고 합리적이라 협의회에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나에게 있어 ‘황시목=조승우’다. 여전히 최고의 파트너로서 믿고 의지하는 파트너십을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팬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배두나는 “작품을 시작하면서 그 어떤 배우나 제작진도 성공을 확신하거나 장담하지 않는다. 그저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최선을 노력을 할뿐”이라며 “팬들의 사랑으로 ‘비밀의 숲2’가 제작된다는 점에서 특별하고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진심을 전했다.

‘비밀의 숲2’는 시즌1에 이어 이수연 작가가 집필을,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맨발의 달팽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감성적 접근으로 특유의 매력적인 영상미를 구축한 박현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후속으로 오는 8월15일 오후 9시 첫 방송된다.

서울드라마어워즈, ‘무관중’으로 열린다

9월10일 상암 MBC공개홀...시상식 외 다양한 부대행사도

국내 유일의 국제 드라마 페스티벌인 ‘서울드라마어워즈 2020’이 오는 9월10일 무관중으로 개최된다.

(재)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는 제15회 서울드라마어워즈 시상식을 9월10일 상암 MBC공개홀에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무관중 행사로 개최되며, 국가 간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해 국내 시상자 및 수상자만 초청한다.

시상식 외에도 작품작, O.S.T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된다. 조직위는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부대행사를 기획 중이다.

서울드라마어워즈의 시상 부문은 국제

경쟁부문, 국제초청부문, 한류드라마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41개국에서 212개의 작품이 출품되면서 국제 드라마 시상식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출품작들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에서 총 108개의 작품이 출품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75개의 작품을 출품한 유럽을 포함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동도 출품에 참여함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문화권을 대표하는 드라마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는 30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드라마를 의미하는 ‘숏폼(Short-Form)’이 새로운 작품 부문으로 신설됐다.

이번 서울드라마어워즈에는 총 37편의 숏폼 작품들이 출품됐고 트렌디한 웹드

라마들의 경쟁도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출품작 중에는 다양한 여성 주인공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여성 파워’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은 점도 특징이다.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시상식은 관계자들과 관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드라마 관계자들과 관객들이 지친 일상 속 활기를 찾고,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소통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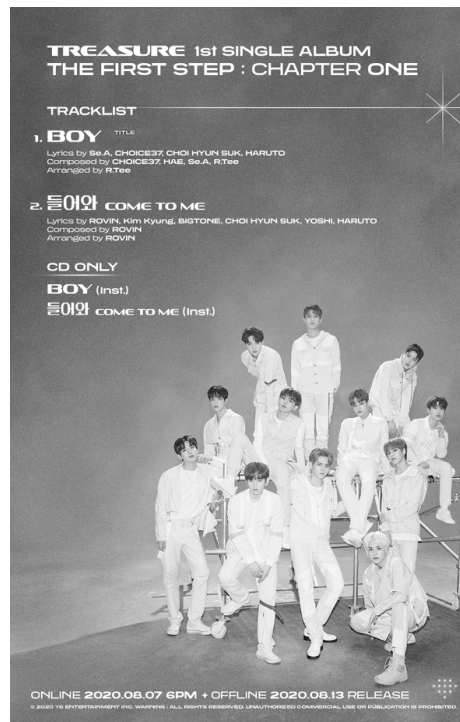
서울드라마어워즈는 드라마를 통한 글로벌 문화교류와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방송협회와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가 주최해 온 국제 시상식이다.

매년 전 세계 TV 드라마 가운데 대중성과 작품성을 가진 작품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의 본선 진출작은 내달 발표된다.

한편 서울드라마어워즈 2020은 시상식 당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공식 온라인 생중계 플랫폼 및 MBC 녹화 중계 편성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베일 벗는 YG 신인그룹 ‘트레저’

데뷔곡 ‘보이’



YG 엔터테인먼트 4년 만의 신인그룹 ‘트레저(TREASURE)’가 데뷔를 앞두고 베일을 벗고 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30일 트레저의 첫 싱글 ‘더 퍼스트 스텝 : 챕터 원(THE FIRST STEP : CHAPTER ONE)’ 트랙 제목과 참여 아티스트 크레디트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싱글은 타이틀곡 ‘보이(BOY)’와

‘들어와 (COME TO ME)’ 총 2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오직 피지컬 음반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타이틀곡과 수록곡 인스트루멘탈 버전도 수록됐다.

YG 내부 프로듀서들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도 눈길을 모은다. ‘보이’를 위해 더블랙레이블 소속 R.Tee 프로듀서를 비롯해 Se.A, CHOICE37, HAE 등 실력과 프로듀서들이 나섰다. ‘들어와’의 전반적인 작업은 로빈(ROVIN)이 맡았고, 김 경(Kim Kyung), 빅톤(BIGTONE)이 작사에 힘을 보탤다.

특히 트레저 래퍼 라인 최현석, 요시, 하루토가 타이틀곡과 수록곡 랩 메이킹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앞서 최현석은 중독성 강한 사운드로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던 콘셉트 티저 영상 배경 음악에도 참여했다.

YG는 “‘더 퍼스트 스텝 : 챕터 원’은 트레저의 첫 번째 발걸음’을 의미하는 직관적인 앨범명으로 트레저의 시작과 이들이 펼칠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기대하게 한다”고 소개했다.

내달 7일 정식 데뷔를 확정된 트레저는 최현석 지훈 요시 준규 마시호 윤재혁 아시히 방예담 도영 하루토 박정우 소정환으로 구성됐다.

YG가 블랙핑크 이후 4년 만에 발표하는 대형 신인 그룹이다. 빅뱅, 워너, 아이린에 이은 YG 차세대 보이그룹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슈퍼주니어-K.R.Y., 5년만의 단독콘서트

내달 23일부터 온라인 공연



그룹 ‘슈퍼주니어’의 보컬 유닛 ‘슈퍼주니어-K.R.Y.’가 온라인 공연 플랫폼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로 5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30일 소속사 레이블 SJ에 따르면 슈퍼주니어-K.R.Y.는 내달 23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를 통해 유료 생중계 공연 ‘비욘드 라이브 슈퍼주니어-K.R.Y. : 푸르게 빛나는 우리의 계절 더 모먼트 위드 어스’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슈퍼주니어-K.R.Y.는 최근 발매한 첫 미니앨범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수록곡 무대를 포함, 감성 발라드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히트곡 무대를 준비한다.

레이블SJ는 “오랜만의 단독 공연인 만큼 ‘동화’라는 콘셉트 아래 멤버들이 주인공이 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형식으로 연출해 특별함을 더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곡의 분위기를 배가시키는 증강현실(AR) 그래픽, 다중 화상 연결을 통한 인터랙티브 소통 등 ‘안방 1열’ 관객들을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

앞서 슈퍼주니어-K.R.Y.는 지난 2015년 8월 22-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을 시작으로 아시아 10개 도시에서 총 12만 관객을 끌어모았다.